

PACKAGING NEWS



협회 · 회원사

-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 정보교류 확대
- (사)한국포장협회 협회장배 골프대회 진행
- 동원시스템즈 그룹 신성장동력 2차전지소재 사업 박차
- (주)씨오텍 '2차전지용 분리막 코팅 장비' 본격 양산 돌입
- SKC 주주가치 제고 위한 자사주 매입 결정
- 오리온, 생수병 라벨 없애 비닐 사용 줄여
- 한국컨테이너풀 '다회용 수송포장재' 시범사업 환경적 효과 입증

업계

- 농촌진흥청 버섯 수확 후 남은 '배지' 친환경 포장재로 변신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ESG경영 · 친환경포장 사용 확대 업무협약 체결
-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다회용 택배용기 상용화 반대
-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창립 33주년 기념행사 및 한마음대회
- 연세대학교 패키징및물류학과 학과 20주년 기념행사
- 'interpack 2023' 한국 설명회 개최
- CJ제일제당 · 유한킴벌리 PHA 활용 '지속가능 제품' 개발 확대 협력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

정보교류 확대

친환경 포장 등 공통 주제에 대해 논의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위원장 김창순)과 지난 10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분과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 간 정보교류, 2023년 전망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특히 친환경 포장과 관련하여 각사별 대응과 준비사항, 회원 간 궁금한 사항, 질의문답 등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져 공통 주제를 도출하여 논의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친환경과 관련하여 재질 단일화 등 포장재 개발 및 적용,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한 제품 개발 동향, 플렉소 인쇄기 도입 및 운영 동향, 녹색인증 등 친환경 인증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분과는 회원들의 공고한 단합을 위해 야의 행사와 연계한 회의, 해외 포장전시회에 공동 참관하고 흐름을 파악하여 논의하는 다양한 모임 방법도 제시했다.

다음 연포장분과회의는 오는 12월 8일 가질 예정이다.



▲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가 다양한 정보 교류를 가졌다.

(사)한국포장협회**협회장배 골프대회 진행**

고문, 자문위원 초청 어울림 행사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달 26일 기흥 골드CC에서 2022 협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협회 고문, 자문위원을 초청해 회원들과 어울림 한마당으로 진행되어, 협회 발전을 위한 조언과 의견교환 등이 이루어졌다.

임경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협회의 전통 중 하나인 골프대회를 통해 현직에 재직할 때 협회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합과 발전에 앞장서신 고문, 자문위원님을 모실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만남의 시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창 고문은 “협회는 회장과 임원들이 주축이 아니고 회원 한분 한분 모두가 주인이며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회는 내 회사와 같이 여기고 모든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일권 자문위원, 장형순 자문위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2022 협회장배 골프대회에서는 우승 이수현 대표, 준우승 김선창 고문, 메달리스트 김보철 대표, 룡기스트 우병윤 대표, 니어리스트 전준호 대표가 차지했다. 협회는 11월 23일 납폐식을 갖는다.



▲ (사)한국포장협회 2022 협회장배 골프대회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대상(주)

1956년 11월 1일 창립 66주년

미성포장산업(주)

1967년 11월 1일 창립 55주년

양림문화사

1984년 11월 1일 창립 38주년

[주]용덕산업

1986년 11월 15일 창립 26주년

효성화학

1957년 11월 3일 창립 65주년

롯데알미늄(주)

1966년 11월 4일 창립 56주년

삼육지관공업(주)

1974년 11월 10일 창립 48주년

[주]우성팩

1997년 11월 19일 창립 25주년

[주]한국팩키지

1993년 11월 8일 창립 29주년

희성폴리머(주)

1996년 11월 11일 창립 26주년

동원시스템즈

그룹 신성장동력 2차전지소재 사업 박차

전기차와 동일한 규격의 배터리 캔 생산 확대

동원그룹은 계열사 동원시스템즈(대표이사 조점근, 서범원, 장성학)의 2차전지 소재를 그룹 신성장동력으로 지목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동원그룹은 지배구조 재편을 맞아, 새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종합 패키징·첨단소재를 다루던 계열사 동원시스템즈가 2차전지 핵심 소재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2차전지용 원통형 캔 제조 자회사 엠케이씨(MKC)를 인수·합병했다. 엠케이씨는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주요 배터리업체에 배터리 캔을 납품한 바 있다.

이어 동원시스템즈는 지난 1월 21700규격(지름 21mm, 높이 70mm) 원통형 배터리 캔의 내식성을 높이는 기술을 업계 최초로 개발, 완제품 생산에 성공해 주목받았다.

지난 7월에는 원통형 배터리 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신공장 증설에 나섰다. 충남 아산의 신공장은 21700규격과 4680규격(지름 46mm, 높이 80mm) 원통형 배터리 캔을 주력으로 연간 약 5억 개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중 동원시스템즈는 4680규격 원통형 배터리 캔 제품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배터리 캔을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로 가공해, 4680규격 시장을 주도하는 테슬라에 공급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평이다. 다만 사 측은 협력사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배터리 공급 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 밖에 동원시스템즈는 순천향대와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MOU’를 체결하는 등 공격적인 인재확보에 나섰다.

동원시스템즈 관계자는 “최근 추진되는 동원산업-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의 목적은 신성장동력 강화”라면서 “2차전지 소재 사업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와 인력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동원 시스템즈의 2차전지 소재 사업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신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도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아산 2차 전지 원통형 캔 사업장 예상 조감도



(주)씨오텍

2차전지용 분리막 코팅 장비' 본격 양산 돌입

추후 해외 2차전지 업체에도 장비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기계 제조업 전문기업 (주)씨오텍(대표이사 김영배)은 최근 자사의 2차전지용 분리막 코팅 장비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거쳐 본격 양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주)씨오텍은 기계융합연구소의 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영배 대표가 2001년 설립했다. 그는 국내 롤투롤(Roll-to-roll) 장비업체의 연구책임자로 근무하며 여러 대기업의 연구소 담당자와 미팅을 하던 중 광학용 코팅장비가 초보적인 단계에 있고 대부분이 외국 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종사자의 대부분이 장비의 국산화를 원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했다. 이에 김 대표는 롤투롤 장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시화공단에서 (주)씨오텍을 창업해 LCD 디스플레이용 코팅 장비부터 제작을 시작했다.

(주)씨오텍은 현재 디스플레이 코팅장비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OLED 디스플레이, 태양광, 전기차용 2차전지, MLCC, 산업재, 친환경소재, 가전, 기타기능성 필름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이중 특히 중점을 두는 분야는 고도화된 기술과 장비를 요하는 '2차전지분리막' 공정이다. 해당 공정은 그동안 외산장비에 의존해 왔지만, (주)씨오텍에서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추후 국내는 물론 해외 2차전지 업체에도 본격적인 장비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현재 (주)씨오텍은 2차전지의 핵심소재



▲ (주)씨오텍이 최근 자사의 2차전지용 분리막 코팅 장비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거쳐 본격 양산에 돌입했다.



인 양극재와 음극재 코팅 라인, 포장재 알루미늄 파우치팩 장비를 일본에 공급하며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주)씨오텍이 제공하는 대표코팅기 브랜드는 분리막텐션자동제어 롤투롤 구조로 되어있는 코팅 설비이다. 현재 시중에 활용되는 제품은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MLCC 이형필름, OLED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제품 등이 있다. 특히 (주)씨오텍 설비의 가장 큰 차별점은 소재부품 장비의 내재화 전략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맞춰 국산화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함으로써 약 29종의 다품종 코팅 M/C 생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 첨단소재 기업에서 (주)씨오텍의 2차전지배터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반도체용필름,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등을 이용하고 있다.

(주)씨오텍 김영배 대표는 “2차전지는 양극, 음극, 전해액 및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극재는 전지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고 음극재는 전지의 전체적인 시스템 결정하며 분리막은 배터리 전체의 안정성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2차전지 분리막코팅기 개발에 성공했으며 분리막 신규업체인 D사에 정밀제어, 핵심기술 등을 어필해 최근 분리막코팅기 2Line을 납품했고 내년 상반기 추가 4Line 증설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기 콘셉트를 제품 특징과 맞게 구성하고 유니트별 설계 착수 시 고객의 니즈에 맞춰 심플하고 경쟁력이 있는 설계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며 “(주)씨오텍에서는 다품종 양산작업이 가능하도록 자동화 라인을 갖추고 품질에 관련된 검사부서를 구성해 제관, 가공, 조립, 설치 등 각 공정마다 검사를 철저히 해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고, A/S는 품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제품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고장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팀을 갖춰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대표는 “전기차 시장 확대로 배터리 핵심소재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되면서 모든 기업들이 분리막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라며 (주)씨오텍은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출 이력을 통해 대기업 계열사와의 협업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기술개발, 현지화 네트워크 구축, 시장조사까지 각 영역에서 전사적인 역량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재가 바로 회사의 자산이고 가치라는 신념 하에 직원복지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인재들을 꾸준히 키워나갈 것”이라며 “3년 안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술개발 및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SKC

주주가치 제고 위한 자사주 매입 결정

글로벌 ESG 소재 솔루션 기업으로 정체성 변화 추진

SKC(대표이사 박원철)가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SKC는 7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사 보통주 189만 3,415주 매입을 의결했다. 이는 발행 주식 총수



(3,786만 8,298주)의 5%로 1,662억여 원 규모다. SKC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10월 1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매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SKC의 자사주 보유량은 전체의 10% 수준이 된다.

이번 결정은 SKC가 주주가치 제고 노력의 일환이다. SKC 관계자는 “정체성 혁신을 추진하는 SKC의 상황을 고려하면 최근 주가가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주가 안정에 기여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취득은 거래 주식이 줄고 회사가 주가 부양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가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SKC는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SKC는 지난 2016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 188만여 주를 매입했다. 또 2019년 주주가 보다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올해에는 주주가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당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차전지, 반도체, 친환경 소재 사업 중심으로 신사업을 추진하며 기업가치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모태사업이었던 필름사업을 매각해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차세대 음극재인 실리콘 음극재,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게임체인저 글라스기판, 새로운 친환경 생분해 소재 등 성장동력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SKC 관계자는 “SKC는 글로벌 ESG 소재 솔루션 기업으로 기업 정체성을 혁신하고 도약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하는 신사업을 빠르게 본격화해 경영성과로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가겠다”고 말했다.

오리온

생수병 라벨 없애 비닐 사용 줄여

분리배출 편의성 및 재활용 효율성 높여

오리온은 닥터유 제주용암수 무라벨 2L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닥터유 제주용암수 무라벨 2L는 기존의 수분리성 라벨을 없애 비닐 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분리배출 편의성과 페트병 재활용 효율성을 높였다. 제품명, 식품유형, 영양정보 등은 묽음용 포장에 기입해 무라벨, 무색캡, 무색병 등 3가지 친환경적인 요건을 갖췄다.

닥터유 제주용암수는 기존 530mL에 이어 2L까지 2종의 무라벨 제품 라인업을 구축했다. 530mL는 외출 시 가볍게 휴대해 마시거나 운동 시 간편하게 수분을 보충하는데 용이하며, 넉넉한 용량의 2L는 가정에서 커피, 차 및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적합하다. 닥터유 제주용암수 앱과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원하는 배송 주기와 요일, 수량을 정해 정기배송도 가능하다.

라벨 유무 상관없이 모든 2L 제품의 페트병 디자인도 개선했다. 제주의 바다와 주상절리를 형상화한 독창성



▲ 오리온의 닥터유 제주용암수 무라벨 2L 제품

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손으로 잡기 편하도록 병 허리 부분에 손잡이 디자인을 적용했다. 한편, 오리온은 음료 사업을 그룹 신수종 사업의 한 축으로 선정하고, 제주 용암해수를 원수로 사용해 만든 ‘닥터유 제주용암수’를 판매하고 있다. 닥터유 제주용암수의 영양정보를 확인해 보면 2L 기준 칼슘 132mg, 칼륨 44mg, 마그네슘 18mg이 들어있다. 물에 녹아있는 칼슘, 마그네슘 함량을 나타내는 경도는 200mg/L로, 연수(軟水) 중심의 국내 물 시장에서 경수(硬水)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오리온은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제품의 포장재 크기와 잉크 사용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2017년에는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용

제를 사용하지 않은 포장재를 개발해 식품용 포장재로는 최초로 환경부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2019년부터 총 120억 원을 투자해 잉크 사용량을 기존 대비 50%가량 절감할 수 있는 ‘플렉소 인쇄설비’를 도입하는 등 환경 친화적 포장 적용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라벨을 제거할 필요가 없고 정기배송으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어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무라벨 제품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 용암해수로 만든 닥터유 제주용암수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컨테이너폴(주)

‘다회용 수송포장재’ 시범사업 환경적 효과 입증

환경부 주도 시범사업 참여해 7개월간 환경 및 경제적 효과 입증

로지스윌그룹 한국컨테이너폴(주)(이하 KCP)이 환경부가 주도하는 ‘다회용 수송포장재’ 시범사업 물류운영사로 참여한 7개월간 환경 및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다고 지난 9월 말 밝혔다.

다회용 수송포장재 시범사업은 일회용 포장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KCP 외 8개 기업 및 기관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유통기업 수요에 맞는 포장재 제작 및 회수체계, 세척관리, 물류정보 시스템 등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KCP는 전용 포장재(다회용 택배상자) 공급, 공박스 회수, 세척, 재공급 등 프로세스 전반의 운영을 담당했다.

다회용 포장재 이용에 참여한 유통기업의 수요에 따라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과 업사이클링 소재인 재생 PET를 소재로 수송용 상자를 개발했으며, 컨테이너 풀링 사업을 통해 전국에 구축한 포장용기 회수 및 세척 인프라를 활용해 다회용 포장재가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9월 14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시범사업기간 약 7개월 동안 다회용 포장재는 총 2만 3,477개를 사용해 총 35만 8,109회 유통했고, 다회용 포장재 당 평균 재사용 횟수는 15.25회였다.

이에 따른 환경성 평가 결과, 다회용 포장재 사용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 74.49% (622.1gCO₂/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회용 포장재가 213.0gCO₂/회, 1회용 포장재가 835.1gCO₂/회 발생된다. 폐기물 발생량은 다회용 포장재가 1회용에 비해 99.3%(610g/회 → 4.3g/회)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 평가 결과에서는 다회용 포장재 사용 시 배송원가가 1회용 포장재 사용 대비 169원(3.9%) 높게 나타났다.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한 5개 유통사 평균 배송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평균 89%로 나타난 다회용 포장재 회수율을 제도 및 인식 개선 등을 더 높일 경우 충분히 비용 개선이 가능한 수준이다.

변진범 KCP 소비자마케팅팀장은 “3R(Returnable, Reusable, Recycle)을 기조로 한 컨테이너 풀링 사업을 운영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다회용기를 적용해 왔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경적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만큼, 더욱 다양한 산업에 다회용 포장용기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버섯 수확 후 남은 ‘배지’ 친환경 포장재로 변신

스티로폼 대체용 용기 등 산업 소재로 가능성 확인

버섯을 수확하고 남은 ‘배지’를 활용해 친환경 포장재를 만드는 기술이 국내에서도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출원을 완료했다고 지난 10월 20일 밝혔다.

배지는 버섯을 수확한 후 남은 것으로 이에 버섯 균사체와 톱밥, 볏짚, 쌀겨 등 농업부산물이 포함돼 있다. 버섯을 수확한 후 남은 배지는 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한해 80만 톤(2020년 기준) 중 16.9%만 유상으로 수거, 재활용(퇴비 등) 되고 나머지는 단순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지난해부터 버섯 수확 후 배지의 부가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스티로폼처럼 분해가 쉽지 않은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재활용(업사이클링)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연구진은 팽이버섯을 수확하고 남은 배지를 멸균 처리한 후 양분과 수분을 추가로 공급한 뒤 특정 버섯의 균사체를 접종했다. 이후 포장재 모양의 성형 틀에 채워 배양하는 과정을 거쳐 친환경 포장 용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성형을 위한 배양 기간은 연구 초기 15~30일이 소요됐지만, 추가 양분의 양과 배양 방법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배양 기간을 7일로 절반 넘



▲ 버섯 배지로 만든 친환경포장재

게 단축했다.

또한 배지 내부(1차)와 외부(2차), 단계별 배양을 통해 소재의 내부와 외부가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도록 균사체를 치밀하게 생육시킴으로써 소재의 취급 비용을 ‘손상 없음(100%)’에 가까운 90% 이상까지 향상시켰다. 참고로 스티로폼의 취급 비율은 100% 정도이다. 연구에 쓰인 버섯 균사체는 실처럼 가는 균사(세포)가 서로 얽혀 배지 입자와 함께 치밀한 그물망 구조를 이루는 특성이 있다. 덕분에 모양과 부피가 일정

하게 유지되는 성질(강성)이 강하다. 이에 따라 포장용 용기 외에도 단열재, 건축자재, 실내장식 제품 등 다양한 산업 소재로 활용도가 높다. 또한 자연 유래 성분으로 100% 생분해가 가능하다.

이미 해외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버섯 균사체의 생물적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산업 소재를 개발하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해외기업에서 제조하는 균사체 개발 기간과 대등한 배양 기간을 지닌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산업 소재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진청은 농산부산물물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문가, 소비자, 농가로부터 기술 평가를 받을 예정이며 이후 현장 적용시험을 거쳐 이번 기술을 버섯 농가와 친환경 관련 업체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장갑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과장은 “버섯 수확 후 배지는 포장 대체 소재뿐 아니라 단열재, 건축자재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재의 물리성을 개선하고 원재료에 알맞은 버섯 배지 등을 추가 연구해 단순 폐기물로 처리되던 수확 후 배지가 버섯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포장 용기 분야는 2026년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의 64%인 28조 원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앞으로 5년간 연평균 21.7%(국내 13.5%)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ESG경영 · 친환경포장 사용 확대 업무협약 체결

친환경 포장기술 확산 기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이찬희, 이하 공제조합)은 2022년 10월 7일 농심 등 재활용의무생산자



▲ 왼쪽부터 LG생활건강 이종규 이사, 매일유업 임기백 팀장, 농심 김보규 상무, 공제조합 이찬희 이사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조영태 원장, 남양유업 남기현 상무, 한국인삼공사 이상원 전락실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재호 이사가 ESG경영 및 친환경포장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대표 6개 기업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과 ESG경영 및 친환경포장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의 친환경포장 정책과 포장기술의 확산을 통하여 기업의 ESG경영 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포장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포장분야 ESG 수요기업인 농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LG생활건강, 매일유업, 남양유업, 한국인삼공사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로 참여하여 친환경 포장 사용 확대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이행을 다짐하였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제조합과 재활용의무생산자, KCL은 친환경포장재 사용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와 함께 친환경 포장분야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개선 등 친환경포장재 사용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KCL은 친환경포장재 연구조사와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제조합은 제도·정책여건이나 교육·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국내외 친환경포장 제도와 정책조사, 공동 학술대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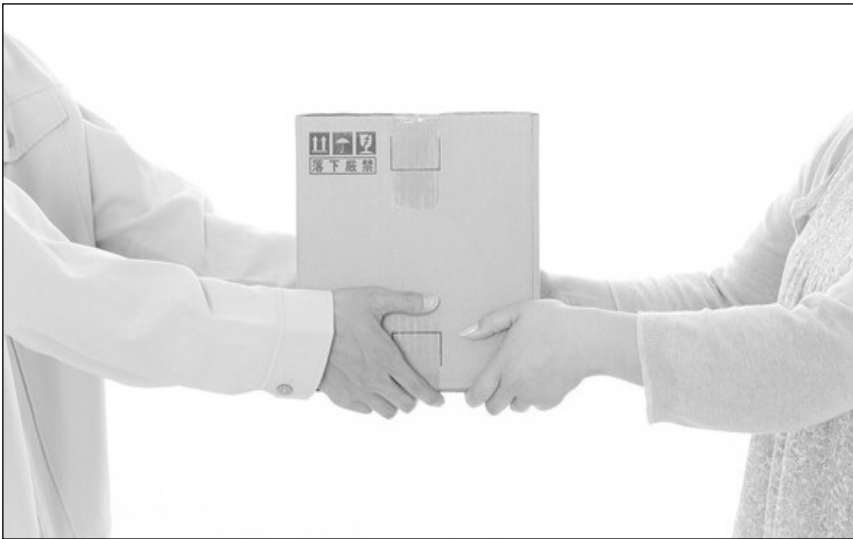
협약의 주요내용은 ▲ESG기업 지원을 위한 친환경 포장 기술지원 서비스 확대 ▲기업 수요와 연계한 친환경 포장분야 공동연구 수행 ▲친환경포장 수요기업 관련 공동 교육, 홍보, 조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과 기술개발 등이다.

이찬희 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개선과 친환경 포장재 사용 확대를 위해 기업·연구소가 손을 맞잡은 모범사례로써 의미가 깊다”고 하면서, “친환경 포장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다회용 택배용기 상용화 반대

환경부 2024년 계획에 이의 제기



▲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 환경부의 '2024년 다회용 택배용기 상용화' 계획에 대해 최근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일영)이 환경부의 '2024년 다회용 택배용기 상용화' 계획에 대해 최근 이의를 제기했다.

환경부는 2024년부터 합성수지제 다회용 택배용기에 대한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9월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유통기업과 용기 보급자에 해당하는 물류기업들이 모여 환경부 산하 한국폐기물협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고 상용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진무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전무는 “지난해 골판지상자 파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인상되고 수급상황에 차질이 발생하는 와중에 쿠팡 등 유통과 병행하는 택배기업에서 회수용 택배용기를 사용했었지만, 회수용 택배용기의 경우 구입비용과 회수 보관, 세척, 손망실에 대한 비용 부담과 회수시스템의 미작동 문제가 상시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김 전무는 “유통과 택배를 병행하는 사업자인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효율적 사용과 회수가 이뤄졌을 때 상당한 비용절감을 기대하면서 긍정적 판단을 하겠지만, 회수 임무가 부차적으로 부과된 택배원의 입장에서는 물품 전달이 본업이기 때문에 용기 회수는 뒷전이 되고 말았던 사례가 쿠팡의 리프레시(Re-fresh) 박스 활용과정에서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실제로 각 아파트 세대에 전달된 택배용기는 문 앞에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택배용기 사용에 대한 이해당사자인 공급자 위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면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무는 “합성수지제 포장용기는 사용 후 폐기 단계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발생과 소각과정에서의 다이옥신 발생 등 환경위해요소 발생이 불가피하며, 골판지포장재에 비해 비중이 35배에 달하고 난분해성소재임에도 폐기 시

매립비율이 67%(1993년 건대산업기술연구소 보고서)에 이른다는 점에서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며 "환경부 주도로 이런 결과가 인용되고 발표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재활용제품인 골판지상자의 친환경성을 도외시하고, 이를 폐기물로 전제해 도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합성 수지제 포장용기가 경쟁력 있는 포장소재라는 식의 발표는 공정하지 못한 연구결과라는 것이다.

김 전무는 "환경부의 상용화 지원 계획은 지류포장 산업계를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창립 33주년 기념행사 및 한마음대회

이번 달 15일, 충주 대영힐스CC에서 열려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이사장 황청성)가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서부터 저녁 8시까지 충주시 대소원면에 소재한 충주 대영힐스CC에서 창립 3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마음 골프대회와 산막이옛길, 중앙탐사적공원 투어 등 다양한 구성을 통해 조합원사와 관련 업계의 화합을 도모한다.

또한, 창립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표창 및 공로패 수여, 기념사(이사장), 축사, 기념 촬영, 축하케이크 커팅, 만찬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문의는 조합(02-786-8293)이나 충주 대영힐스CC(043-850-8602)로 하면 된다.

연세대학교 패키징및물류학과

학과 20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110명이 자리를 빛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과학기술융합대학(학장, 조승연) 패키징및물류학과는 지난 10월 28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금요일 신촌 동문회관 그랜드볼룸3층에서 패키징및물류학과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한국포장협회 임경호 회장을 비롯한 관련 단체장 및 업계 종사자 110명이 참석한 이날의 행사에서는 학과 히스토리 동영상과 동문 축하 영상 상영, 감사패/공로패 증정식, 동문 블라인딩 타임 등을 진행하며, 학과의 20주년을 되돌아보고, 정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권명중 부총장은 인사말에서 "학과의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동문들과 재

학생 그리고 교수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20년간 학과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융합대학 조승연 학장은 축사에서 “앞으로의 20년을 바라보며 학과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패키징 산업에 꼭 필요한 우수한 후학 양성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erpack

‘interpack 2023’, 한국 설명회 개최

알아야 할 정보 및 지원 서비스 공유



▲ 메세 뒤셀도르프 한국대표부 라인메세 박정미 대표



▲ 마쿠스 루스틀러(Markus Rustler) Interpack 2023 참가사 위원회 회장(왼쪽)과 베르트 아블로노브스키(Bernd Jablonowski) 메세 뒤셀도르프 부사장(오른쪽)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포장산업전시회 인터팩(Interpack 2023) 한국 설명회가 지난 10월 6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에서 개최됐다.

Interpack은 포장이 필요한 모든 분야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로 3년 주기로 개최되나, 지난 2020년도는 팬데믹으로 한 차례 취소되어 6년 만에 개최된다. 이를 위해 내년 5월 전시회 개최를 앞두고 베르트 아블로노브스키(Bernd Jablonowski) 메세 뒤셀도르프 부사장과 마쿠스 루스틀러(Markus Rustler) 참가사 위원회 회장이 직접 한국 잠재 방문객들에게 전문 정보를 전달했다.

이번 한국 설명회는 먼저, 가장 최근에 개최된 2017년 전시회의 데이터를 통해 참가사, 참가국, 방문객 수, 전문미디어기사 수, 면적 등을 소개하며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더불어 전 세계 식품 산업 및 제약 산업의 성장률과 소비재와 식품 프로세싱 포장 기계의 성장률을 2021년(기준) 자료를 통해 소개함과 동시에 업계의 순환경제, 자원 관리, 디지털 기술, 제품 안전성을 핫토픽으로 정해 그 내용을 전달했다. 이어, Interpack 2023의 역사, 전시 분야, 지리적 이점과 함께 Oline, TV, APP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개될 마케팅 전략을 소개했다. 또한, 포장업계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인사이트와 혁신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토론회와 컨퍼런스 그리고 특별전 계획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설명회 이후에는 두 연사와 질의응답 시간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CJ제일제당 · 유한킴벌리

PHA 활용 ‘지속가능 제품’ 개발 확대 협력

알아야 할 정보 및 지원 서비스 공유

CJ제일제당은 유한킴벌리와 손잡고 친환경 생분해 소재 PHA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제품’ 개발 확대에 나선다고 10월 7일 밝혔다. 양사는 이를 위해 ‘그린 액션 얼라이언스(Green Action Alliance)’에 참가하는 양해각서(MOU)를 전달 체결했다. 유한킴벌리가 출범 및 운영하는 그린 액션 얼라이언스는 지속가능소재 개발하고 자원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및 제품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 간 협력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 소재 개발과 제품 적용의 중요성 인식 △기술혁신을 통한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 △지속가능한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 적극 참여 및 시장확대 △친환경 생분해 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 활용 제품개발 및 공급 기반 기후 변화 대응과 ESG 경영 실천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사는 CJ제일제당이 생산 중인 친환경 생분해 소재 PHA를 활용한 기저귀나 물티슈, 마스크, 포장재 등의 소비자 밀접 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최근 PHA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글로벌 호텔 체인 아코르(ACCOR)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아코르 계열 호텔에서 제공하는 각종 플라스틱 용품을 PHA 소재로 대체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시작했다. 이 외에도 메이크업 브랜드 ‘바닐라코(BANILACO)’와 함께 화장품 용기 개발에 나서며 생분해 소재 용기가 사용된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2030년까지 매출의 95% 이상을 지속가능한 제품을 통해 달성한다는 ESG 경영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황윤일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 부문 대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생분해 소재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며, 생활 속 일회용품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과 협력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는 “친환경 소재 기반 제품혁신을 통해 고객 선호도를 높이고 실제 시장을 주도하는 제품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자원순환경제가 완성되는 혁신이며, 이를 위해 산업계 전반의 변화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CJ제일제당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성과 제품력을 높여 소비자와 함께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